

## 애플과 파월 의장의 힘으로 차익 매물 이겨낸 하루

서상영 sangyoung.seo@miraeasset.com

### 미 증시 동향

- 미 증시는 애플(+2.41%)이 차기 아이폰 생산량을 20% 늘리도록 요청 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자 상승 출발. 그러나 실적 발표한 금융주와 국제유가 약세로 인한 에너지 업종이 부진하자 하락 전환하는 등 제한적인 등락을 보임
- 오후 들어서는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 청문회를 통해 인플레이 압력에도 불구하고 경기 자신감 표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지속하자 재차 상승 전환. 더불어 베이지북을 통해 연준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 표명한 점도 긍정적 요인.
- 다만, 차익 욕구는 여전히 전반적으로 보합권 등락을 보이며 혼조 마감
- 다우 +0.13%, 나스닥 -0.22%, S&P500 +0.12%, 러셀2000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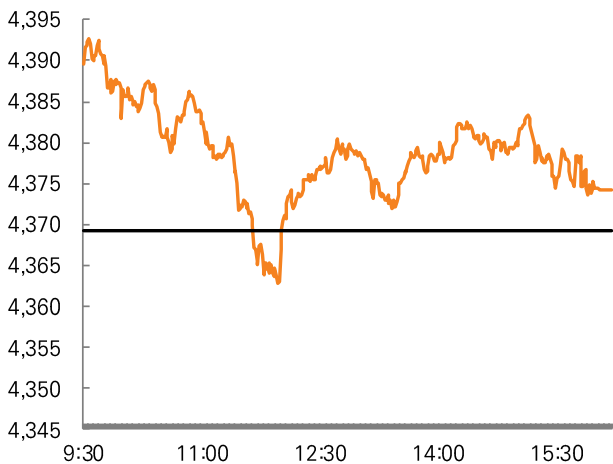
### 특이 종목

- 애플(+2.41%)은 9월 발표되는 차기 아이폰 생산량 20% 증대 소식으로 상승
- 스카이웍(+1.05%), 퀄컴(+1.82%), ASML(+1.43%), TSMC(+0.40%) 등 동반 상승
- 넷플릭스(+1.34%)는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긍정적인 전망을 예상으로 강세
- BOA(-2.51%)는 예상을 상회한 영업이익 발표에도 불구하고 매출 부진 여파로 하락
- 블랙록(-3.06%)은 예상보다 큰 수익과 매출 발표 이후 차익 실현 매물로 하락
- 엑손모빌(-2.22%), 코노코필립스(-3.01%)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부진

### 한국 증시 전망

- MSCI 한국 지수 ETF는 0.67%, MSCI 신흥 지수 ETF는 0.43%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44.75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5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31% 상승. KOSPI는 0.5% 내외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 미 증시가 애플의 새로운 아이폰 생산량 증대 소식과 연준의 온건한 통화정책 지속 등이 지속되며 견고한 모습을 보인 점은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듯.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애플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차익 욕구 또한 높아 상승 출발 후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0.20	-0.20	홍콩항셱	27,787.46	-0.63
KOSDAQ	+0.16	+0.16	영국	7,091.19	-0.47
DOW	+0.13	+0.13	독일	15,788.98	-0.00
NASDAQ	-0.22	-0.22	프랑스	6,558.38	-0.00
S&P 500	+0.12	+0.12	스페인	8,658.30	-0.42
상하이종합	-1.07	-1.07	그리스	871.07	+0.16
일본	-0.38	-0.38	이탈리아	25,194.33	+0.15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 ① 애플의 힘 ② 파월 연준 의장 증언 ③ 개별 이슈

애플(+2.41%)이 공급업체에게 9월 발표가 예상되는 아이폰 차기작에 대한 생산량을 20%(9천만 대) 늘리도록 요청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상 최고치 경신을 지속. 최근 분기 급격한 판매 증가 및 추가 실업급여 중단 등으로 내년 수요가 둔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이러한 공급 증가 소식으로 관련 우려를 잠재웠다는 점에서 투자심리에 긍정적 요인

여기에 JP모건이 2주 후에 있을 애플의 실적 발표가 예상을 크게 상회할 것이라며 비중 확대 의견과 목표주가를 170달러에서 175달러로 상향 조정한 점도 우호적. 여기에 시장이 차기 아이폰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너무 낮게 형성되어 있다며 실제로는 견고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 씨티그룹 또한 애플의 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한 점도 긍정적. 이 결과 애플과 애플 부품주가 강세를 보이며 장 초반 상승을 주도

한편, 파월 연준 의장은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 반기 통화정책 증언 첫날 준비된 모두 발언을 통해 백신 접종 등으로 경제 재개와 강력한 경제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고용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언급.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몇 개월 동안 계속 상승 하겠지만 일시적인 전망은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도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여전히 채권 매입은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온건한 통화정책 유지를 시사. 이 소식도 장 초반 상승 요인 중 하나

의회 증언에서도 파월 의장은 테이퍼링은 논의 중이나 임계치에 이르기에는 아직 멀고 국채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다고 언급. 특히 조기 금리인상은 정책의 실수라며 금리인상과는 선을 긋는 모습. 고용과 관련해서도 완전 고용에는 아직 거리가 멀지만, 몇 개월 동안 고용이 급격하게 개선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미국 경기 회복 속도는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경기에 대한 자신감 또한 표명. 결국 파월 의장은 지속적으로 주장 해왔던 일시적 인플레이, 고용 개선, 경기 회복 자신감 표명한 것. 이러한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국채 금리는 하락하고, 달러화 약세, 주식시장 강세를 견인

여기에 장 후반 연준은 베이지북을 통해 경제 활동은 강화 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경기 기대는 여전히 강조. 물론 공급문제가 물가의 상승 속도를 자극하고 있으나, 일시적이라는 판단은 유지. 대체로 파월 의장의 발언과 베이지북은 주식시장에 긍정적 요인

장중에 지수는 하락 전환하기도 했는데 이는 금융주 실적 발표 및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것. BOA(-2.51%)는 매출이 예상을 하회했고, 순이자 수입도 6% 감소 했다는 소식에 하락하며 금융주 약세를 야기. 여기에 국채 금리가 장 시작 전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 증언을 앞두고 모두 발언을 통해 온건한 통화정책 지속을 발표하자 하락한 점도 금융주 부진 요인.

더불어 에너지 업종이 약세를 보인 점도 장중 지수 하락에 영향. 이는 OPEC이 아랍에미리트의 산유량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데 합의하자 국제유가가 한 때 4% 넘게 하락한 데 따른 것. 더불어 EIA가 지난 주 원유재고가 예상보다 감소폭이 늘었지만 감소 예상된 가솔린 재고가 증가한 점도 국제유가 하락 요인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애플과 관련주, 리츠 강세 Vs. 금융, 에너지 부진

애플(+2.41%)은 9월 발표되는 차기 아이폰 생산량 20% 증대 소식으로 상승. 더불어 JP모건이 실적 개선을 이유로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한 점, 씨티그룹이 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한 점도 긍정적인 요인. 스카이웍(+1.05%), 퀄컴(+1.82%), ASML(+1.43%), TSMC(+0.40%) 등 애플 관련 종목군도 동반 상승. 넷플릭스(+1.34%)는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긍정적인 전망을 예상한다는 분석들이 이어지자 강세. 반면, 로쿠(-3.31%)는 경쟁 악화 우려로 하락. 코카콜라(+2.25%)는 보통주 42센트 배당금 발표하고 새로운 임원 임명을 통해 사업 전략 수정 가능성이 제기되자 강세. 투자의견 하향 조정된 펩시코(+1.03%) 등도 동반 상승. 아메리칸 타워(+1.02%), 리얼티 인컴(+0.58%) 등 리츠금융사들도 국채금리 하락 등과 더불어 상승

BOA(-2.51%)는 예상을 상회한 영업이익 발표에도 불구하고 매출 부진 여파로 하락. 씨티그룹(-0.29%)은 예상을 크게 상회한 실적 발표로 상승 하기도 했으나 국채 금리 하락과 비용이 예상 이상인 3% 증가를 상회한 한자릿수 후반을 기록할 것이라는 발표로 하락. 블랙록(-3.06%)은 예상보다 큰 수익과 매출 발표 이후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지며 하락. 반면, 웰스파고(+3.98%)은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과 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상승. 엑손모빌(-2.22%), 코노코필립스(-3.01%)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부진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4.94	대형 가치주 ETF(IVE)	-0.03
에너지섹터 ETF(OIH)	-3.63	중형 가치주 ETF(IWS)	-0.23
소매업체 ETF(XRT)	-1.26	소형 가치주 ETF(IWN)	-1.11
온라인소매 ETF(IBUY)	-3.06	대형 성장주 ETF(VUG)	+0.13
금융섹터 ETF(XLF)	-0.46	중형 성장주 ETF(IWP)	-1.18
기술섹터 ETF(XLK)	+0.74	소형 성장주 ETF(IWO)	-2.05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64	배당주 ETF(DVY)	-0.03
인터넷업체 ETF(FDN)	-0.96	신흥국 고배당 ETF(DEM)	+0.07
리츠업체 ETF(XLRE)	+0.88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46
주택건설업체 ETF(XHB)	-0.33	미국 국채 ETF(IEF)	+0.43
바이오섹터 ETF(IBB)	-1.27	하이일드 ETF(JNK)	+0.11
헬스케어 ETF(XLV)	-0.09	물가연동채 ETF(TIP)	+0.27
곡물 ETF(DBA)	+1.11	Long/short ETF(BTAL)	+0.59
반도체 ETF(SMH)	-0.22	모멘텀 ETF(MTUM)	-0.73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필수소비재	729.69	+0.92	+0.95	+0.73
부동산	288.29	+0.89	+1.66	+2.28
유틸리티	329.69	+0.83	+0.26	-1.74
IT	2,688.70	+0.73	+1.23	+7.58
통신	270.28	+0.07	+0.62	+3.33
산업재	867.32	-0.04	-0.73	-0.63
경기소비재	1,463.27	-0.17	-0.07	+5.76
소재	516.70	-0.19	-0.26	-2.79
헬스케어	1,499.48	-0.20	-0.25	+3.48
금융	606.49	-0.49	+0.24	-1.79
에너지	384.51	-2.94	-2.25	-8.52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애플 관련주와 중국 실물 경제지표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는 0.67%, MSCI 신흥 지수 ETF는 0.43%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144.75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5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31% 상승. KOSPI는 0.5% 내외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전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급등과 동남아시아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대에 대한 우려로 하락. 특히 중국 증시가 1% 넘게 하락하는 등 아시아 주식시장 약세와 달러 강세에 따른 외국인 수급 불안 등이 부정적인 요인. 그렇지만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등을 기대하며 낙폭은 제한. 특히 코스닥은 IT 부품 업종의 강세 등에 힘입어 상승한 점도 특징.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애플의 새로운 아이폰 생산량 증대 소식과 연준의 온건한 통화정책 지속 등이 지속되며 견고한 모습을 보인 점은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듯. 특히 파월 발언 이후 달러화의 약세폭이 확대되고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유입된 점은 외국인 수급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증시 강세 가능성을 높임

특히 오늘 발표되는 중국의 GDP 성장률은 물론 소매판매, 산업생산 등 실물 경제지표 또한 견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도 우호적. 이 또한 외국인 수급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애플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차익 욕구 또한 높아 상승 출발 후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 생산자 물가지수 급등

미국 6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0% 상승하고 전년 대비 7.3% 상승해 예상을 크게 상회.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또한 전월 대비 1.0%, 전년 대비 5.6% 상승. 특히 식품이 전월 대비 0.8%, 전년 대비 10.9%, 에너지가 전월 대비 2.1%, 전년 대비 35.2%나 급등했고 가솔린이 무려 전년 대비 81.1%, 난방유가 전년 대비 95.6%나 급등. 내구재는 전월 대비 1.1%, 전년 대비 4.9% 급등 했고 핵심 내구재 또한 전년 대비 2.9% 상승



## 국제유가 급락 Vs. 곡물 가격 급등

국제유가는 OPEC이 UAE와 UAE의 증산 기준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장 중 4% 넘게 하락하기도 했음. 월 초 OPEC+ 회담이 무산된 이유가 UAE의 증산 기준 조정을 이유로 합의하지 않았던 부분이 해소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이는 OPEC+ 협상 타결 기대 속 감산 규모 축소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 여기에 미 에너지 정보청이 지난 주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많은 790만 배럴 감소 했다고 발표했으나 가솔린 재고가 180만 배럴 감소 전망과 달리 100만 배럴 증가하고 정제유 또한 370만 배럴 증가한 점도 국제유가 하락 요인. 더불어 동남아시아 지역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대도 부정적인 요인

달러화는 파월 연준의 발언 내용에서 놀랄만한 내용이 없었다는 점에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 시장은 전일 소비자물가지수 급등에 대해 파월 의장이 조금은 매파적으로 돌아 설 수 있음을 우려 했으나 모두 발언과 의회 증언 모두 여전히 온건한 통화정책을 시사하자 달러화는 약세를 보인 것. 더불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자 위험 자산 선호심리가 약화 된 점도 달러 약세 요인. 캐나다 달러는 통화정책 회의에서 고용 개선 등으로 추가적인 테이퍼링을 단행 했으나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세폭은 제한

국채금리는 파월 의장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 했음에도 여전히 테이퍼링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적으로 멀다고 주장하고, 조기 금리인상과는 명확하게 선을 긋는 발언을 하자 하락. 여기에 파월 의장이 국채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고 주장한 점도 금리 하락 요인 중 하나. 결국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성급한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금리 하락을 이끌

금은 달러 약세와 파월 의장의 온건한 통화정책 언급으로 상승.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 불구하고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부진. 곡물은 주말까지 비가 내릴 것이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급등. 이번 비가 끝나고 다음 주 주요 작황지 모두 다시 가뭄이 시작 될 것이라는 소식에 따른 것으로 추정. 특히 7월 말 덥고 건조한 날씨 전망은 대두 수확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날씨는 8월까지 지속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곡물 가격 상승 요인.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강석은 0.70% 하락 했으나 철근은 0.67% 상승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3.13	-2.82	+1.29	Dollar Index	92.353	-0.43	-0.31
브렌트유	74.76	-2.26	+1.81	EUR/USD	1.1838	+0.53	+0.41
금	1,825.00	+0.83	+1.27	USD/JPY	109.95	-0.61	-0.64
은	26.27	+0.50	+0.54	GBP/USD	1.3863	+0.35	+0.45
알루미늄	2,525.00	-0.41	+1.02	USD/CHF	0.9143	-0.44	-1.21
전기동	9,342.50	-0.74	-1.19	AUD/USD	0.7482	+0.47	-0.07
아연	2,925.50	-0.31	-1.12	USD/CAD	1.2508	-0.04	+0.22
옥수수	558.75	+3.33	+5.23	USD/BRL	5.0809	-1.60	-2.28
밀	654.25	+3.23	+5.14	USD/CNH	6.4582	-0.33	-0.25
대두	1,383.25	+2.33	+4.22	USD/KRW	1,148.50	+0.27	+0.91
커피	156.60	+2.86	+4.43	USD/KRW NDF1M	1,144.75	-0.50	+0.23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348	-6.91	+3.12	스페인	0.311	-1.00	-1.80
한국	2.002	-2.80	-3.50	포르투갈	0.277	-1.70	-1.70
일본	0.019	-0.60	-1.50	그리스	0.696	-1.20	-3.60
독일	-0.319	-2.50	-2.10	이탈리아	0.709	-0.50	-3.1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